

## 17장. 마음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셋째 고백

### 1. 유다의 죄 (17:1-4)

유다의 죄는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철필로 새겨졌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죄가 있고, 또한 제단의 뿔은 피를 바르면서 속죄를 받는 곳인데 거기에 죄가 지울 수 없이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자녀는 높은 산 위의 푸른 나무 곁에 불법적인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죄를 범한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들의 대적을 섬기는 벌을 받을 것이다.

### 2.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 (17:5-8)

사람을 믿고 혈육을 자기 힘으로 삼고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는 잎이 청청하여 가물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답이 되었을 것이다(참조. 14:1-6).

### 3. 사람의 마음 (17:9-11)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사람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는 다른 알을 품지만 그 새끼는 후에 자고새를 떠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축적한 부는 그 사람을 떠날 것이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 4. 예레미야의 셋째 고백 (17:12-18)

5-11절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주님을 버린 자의 대조가 12-18절에서는 신실한 예언자와 예레미야의 원수의 대조로 표현된다.

#### 1) 찬송과 간구 (17:12-14)

찬송

12 오, 영광의 보좌여,  
처음부터 높이 솟아 있으니,  
우리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13 이스라엘의 소망, 여호와 주님!  
주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한다. ‘영화로우신 보좌’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개역한글 성경에서처럼 ‘영화로우신 보좌’와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거룩한 처소’라고 호격으로 직접 부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고 읊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기에서 옛적부터 높이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성전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가 된다. 거짓 예언자들은 요시야 때에 개축한 성전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

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7:4) 하고 경고하였다.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므로 그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지 않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이다.

13절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 과 ‘생수의 근원’ 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이에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 와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에 대한 말이 나온다. ‘버린다’ 는 말은 11절에서 재물이 그를 ‘떠난다’ (버린다)는 표현에서 사용되었고, ‘떠난다’ 는 말은 5절에서 사람을 믿는 자가 ‘여호와를 떠난 자’ 라고 할 때에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의 그릇된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흠에 기록된다고 한다. 1절에서 유다의 죄가 철폐로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에 기록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흠에 기록되어서 그들이 흠으로 돌아가고 역사 위에서 사라질 것을 암시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것이 곧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자들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한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도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면 목마를 염려가 없을 것이다(2:13). 이스라엘은 생수를 버렸을 뿐 아니라 물이 새는 웅덩이를 택하였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고 버린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린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핍박한다. 여기에서 시인의 간구가 나온다.

#### 간구

14 여호와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낫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를 고쳐 주시기를 구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일이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를 공격하여서 상처를 받게 하였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떨어진 것이다. 다음 절에서 그는 그의 형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된다.

#### 2) 고백과 간구 (17:15-17)

##### 고백

15 보소서,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보라.”  
16 그러나 저는 목자의 일에서<sup>15)</sup>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재앙의 날을 제가 원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고 말한다고 한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북쪽에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한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핍박한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면서 조롱의 말을 한다(참조 사 5:19).

그러한 때에 예언자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비록 그가 전하는 말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으나 그는 그 말을 가감이 없이 다 전하였다. “재앙의 날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하는 말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성전과 시온이 파괴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 바로 ‘재앙의 날’ 이 될 것인데, 비록 그가 그러한 재앙을 전파하여도 그러한 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15) ‘메로에’ 를 ‘메라아’ 로 읽으면 ‘재앙으로부터’ 라는 말이 된다. 아퀼라와 심마쿠스 번역은 ‘메라아’ 로 이해하고 번역하였다. 재앙으로 번역하면 뒷구절, 곧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과 짝을 이룬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을 조롱하는 맥락에서 ‘목자의 일’ 을 계속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다.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그러한 심정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하면서 호소한다.

## 간구

- 17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sup>16)</sup>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입니다.  
 18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갑절의 파멸로 파멸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이 없이 전하였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큰 두려움을 느꼈다. 17절에서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하였는데 같은 말이 18절에서는 동사 형태로 나온다. “그들로 두렵게 하시고 나로 두렵게 마시옵소서”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놀라게’로 번역되었음). 같은 단어를 세 번 사용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표시한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약속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1:17). 예레미야를 이방 나라에 보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다.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8절은 ‘수치’ ‘두려움’ (놀람) ‘파멸’이라는 세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된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재앙의 날’과 연결된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의 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였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복이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예언자의 수치는 벗겨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 5. 안식일을 지켜라 (17:19-27)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문에서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일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전 제사가 보존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 목상과 실천:

#### 복음 전파자의 고통과 기도

셋째 고백은 처음 두 고백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끝난다. 따라서 긴 여운과 함께 이 부분을 읽게 된다. 우리로서는 그 깊이를 헤아려 알기 어려운 신비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의 고백으로 읽는 것이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한다는 것, 특히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 말을 교묘하게 엮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더 어렵다. 17:1-4에서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5-8절에서는 사람을 믿고 혈육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는 것을

16) 직역하면, “주님께서 저의 두려움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대조하여 말한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있고, 그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들을 잘 관리한다. ‘우리’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동물적인 후각을 가지고 알아낸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를 공격하게 한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이다.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자기의 고통도 주님께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도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기도한 것이다.

구약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은 신약에서도 계속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눅 16:14-15).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데(눅 16:13)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으며,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나 바리새인이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지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모두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말쑤에 반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주님께 호소하였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본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분께 나아가면 복음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 17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으로 어디에 새겨졌다고 하셨습니까? (1절)
2. 여호와를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각각 어떤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6, 8절)
3. 1) 여호와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9절)  
2)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다 아시고 무엇을 살피시고 시험하시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9절)
4.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디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3절)
5. 예레미야는 “주는 나의 찬송” 이라 말하며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무죄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다? (16절)
6.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19-27절)
  - 1)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 2) 그곳에서 전파하라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3)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